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오라카라 중점을 수 없는 날씨를 보니 봄이다. 낮에는 햇살이 등을 밀어 외투를 벗게 만들다가도, 해가 기울면 싸늘한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하루 사이에도 계절이 몇 번은 바뀌는 듯한 요즘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됐고, 혹시 모를 변화에 대비해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선다. 그렇게 하루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을 살아간다.

얼마 전,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김예란 작가의 인터뷰를 보게 됐다. 작가는 인간과 인공지능(AI)의 대화 차이를 이야기했다. 인간은 질문을 받으면 '망설임'이란 시간을 갖지만, 인공지능은 곧바로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망설임이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상대의 질문 앞에서 곧바로 말을 꺼내기보다 잠시 멈춘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지,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너무 가볍게 들리지는 않을지 스스로 질문해보는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기색을 느낀다.

반면, 인공지능은 질문을 받으면 주저 없이 답한다. 가

AI는 하지 못하는, 인간의 망설임에 대해

장 적절해 보이는 문장을 빠르게 완성해 낸다. 그것은 분명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는 그 덕분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는다. 그러나 그 빠른 속에는 잠시 멈추어 상대를 바라보는 시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 일부러 말을 고르는 순간,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때로는 너무 정확하고 완벽한 문장이 오히려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다.

꽤 오랜 장동민이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을 때, 유재석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작정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때 유재석은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래, 동민아'라고 말한 뒤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특별한 조언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장동민이 다시 마음을 잡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한다. 이 일화는, 때로는 말보다 '망설임'과 '경청'이 더 큰 위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괜찮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까 봐, 위로의 문장이 오히려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들까 봐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상대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듣는다. 그 조심스러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된다. 망설임은 결핍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가장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림 없이 답을 얻고, 고민 없이 선택하는 일

익숙해질 것이다. 효율과 속도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답을 기대하고, 잠시의 침묵조차 불편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멈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쉽게 답하지 않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며, 때로는 말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봄 날씨가 그러하듯 인간의 마음도 늘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잊힌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한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려 노력한다.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 망설이고, 상대의 표정을 읽기 위해 잠시 멈추며, 어떻게 해야 위료가 될지 몰라 그저 곁에 머무른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료가 되기도 한다. 어쩌면 공감이란, 그렇게 멈추어 서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빠르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지 않는 것.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도 곁에 머무는 것. 그 느린 태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마음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툴고 느리다. 그러나 그 느림과 망설임이 있기에 서로를 향해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기술도 대신할 수 없는 AI가 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방식일 것이다.

기고

장광열

전남도 총무과장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시 '나 하나 꽃피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깨운다. 변화는 언제나 거대한 구조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실한 변화가 이어질 때, 공동체는 결국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직무만족 기준으로 '성과'보다 '삶의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3년 인사혁신처 조사에서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많은 공무원이 여전히 '참고 견딘다'거나 '동료와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적 지원보다 개인의 인내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는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감추게 만들고,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낳기도 한다. 이제는 버티는 능력보다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 상태를 먼저 떠올려왔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겼고 마음의 고단함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 했다. 이제는 시신을 몸에서 마음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 맺

마음이 건강한 공무원이 도민의 행복을 만듭니다

으며, 삶의 균형을 지켜내는 힘이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제는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무원의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사람을 마주하고, 다양한 감정을 받아내며, 갈등을 조절하고, 때로는 정답 없는 선택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원인의 절박함과 분노,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마주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을 수반한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심리적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아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오랫동안 '공복(公僕)이니 참고 버티야 한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 인내를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공직사회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그 첫걸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2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전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했다. '전 직원 마음 건강, 활력 있는 직장생활'을 목표로 예방-조기 발견-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했다. 심리검사와 상담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다. 나아가 관리자와 동료를 대상으로 한 인식 교육을 확대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자 행정의 질을 높이는 투자

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관점'에 있다. 아픈 사람을 돕는데 머무르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가 더 이상 개인의 희생 위에 서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많은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불안과 부담을 안고 있다. 변화의 방향과 역할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혼란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익숙한 것을 내려 놓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나부터'라는 작은 마음이면 충분하다. 곁에 있는 동료의 안부를 묻는 일,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응기 내어 손을 내미는 일, 그 소소한 실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한 사람의 회복은 조직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결국 도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고 응원하며 함께 피어날 때 비로소 꽃밭이 된다. '전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한 걸음이, 서로를 돌보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는 조용하지만 깊은 물결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물결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마음이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스타트업, 기술보다 절차에 막힌다

송대웅

산업부 차장



스타트업에게 시간은 생존과 직결된다. 대기업처럼 수년간 적자를 감당하며 버틸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갖춘 것도 아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지 빠르게 검증하고 투자와 판로를 연결해야 살아남는다. 특히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처럼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일수록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광

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쏟아졌다. 청년 창업가들은 실증 절차와 규제 대응, 각종 지원사업 준비 과정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은 인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검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각종 인증, 평가 대응까지 기업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업의 역량이 '시장'보다 '서류'에 쏠리는 셈이다.

정부 역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규제 특례 제도를 확대해 왔는데 문제는 현장의 체감 속도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사업 숫자보다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제조 기반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소프트웨어 기업과 달리 설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 인증 절차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기업은 실증 단계에서 자금이 묶이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 스타트업이 처한 환경은 수도권과 비교하면 더 열악하다. 수도권은 투자사와 대기업, 협력기업, 실증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문제 해결 경로가 다양하지만 지역은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같은 제도라도 지역 기업이 체감하는 진입 장벽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광주·전남은 최근 AI와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실증과 초기 사업화 단계에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멈춰 서 있다면 생태계는 성장하기 어렵다. 결국 산업 경쟁력은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이 시장으로 나가는 '속도'에서 결정된다.

단순히 지원사업 숫자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타트업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다.

사설

전남 잉여전력 기업유치로 수요 창출해야

지난 2024년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228.1%)에 이어 2위로 전국 평균(108.3%)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력자립률은 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즉, 한 지역의 전력 발전량이 그 지역의 전력 소비량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생산이 소비를 넘는 단계다.

반면 오는 7월부터 전남과 같은 생활권인 광주 지역의 전력자립률은 9.3%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 풍력·태양광 발전 등 변동성이 있어 조절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원을 뜻하는 VRE(Variable Renewable Energy·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경우 전남은 8.2TWh(테라와트시)로 전국 1위인 반면 광주는 365GWh(전국 11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남의 전력 과잉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전량은 늘었지만,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이 부족해 전력 생산량을 줄이는 출력제어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VRE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도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ESS(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 저장장치) 확대, 수요반응, 유연전송 등 변동성 완화를 위한 막대한 운영·제어 인프라 비용이 들어갈 부담이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내에서 소화되지도 못하고 외부로 보내지도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잉여 전력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을 전남에 유치해 남는 전력을 직접 소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해 기존 전국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벗어나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송전 거리가 먼 지역에는 비용을 더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도 절실하다고 한다.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효과 있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효과가 크다. 사회적 단절로 고통받는 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연결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운영하는 이 센터는 지난 2022년 설립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일경험·취업 연계, 동아리 활동 등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세밀하게 짜여 있다. 당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원원원해요!'는 하루 한 번 온라인으로 센터 직원과 1:1로 소통하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발길 초기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명랑한 은둔자 모임'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무등산 속 마음산책'은 외출이 두렵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당사자들이 편백숲, 미술관, 사찰 등을 함께 거닐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또 가상회사인 '아무튼 회사'에 4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동료들과 규칙적인 일과를 수행하는 '아무튼 출근'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이 흐트러진 일상을 되찾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과 진로 탐색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장년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해보면 챌린지'도 운영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지난해까지 총 136명이 이곳을 찾았는데 이중 2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 순이었다.

이들의 은둔 원인은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 취업 실패, 가정 내 갈등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은둔 당사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 자 권 리 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 울 지 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